국어어문규정
교육자료집
(점자본)
제1권/전 2권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편집 및 인쇄: 한국점자도서관
발행일: 2018년 12월

본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2016년 바른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례

제1부 어문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1
2. 띄어쓰기 45
3. 표준어 규정 77
4. 외래어 표기법 107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27
6. 표준 발음법 140

한글 맞춤법

1. 한글 맞춤법의 이해

한글 맞춤법은 표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려면 규칙이 필요하듯이 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언어생활을 하려면 약속이 필요하다. 이에 글을 읽는 사람은 내용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약속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표기 규칙이 무엇인지 한글 맞춤법의 차례를 살펴보자.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4절 모음
제5절 두음 법칙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2절 어간과 어미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5절 준말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 문장부호

한글 맞춤법은 전체의 개관인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2장, 제3장, 제4장, 제6장에서는 표기법의 핵심인 철자법을, 5장에서는 띄어쓰기를, 부록에서는 문장 부호를 표기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글에서는 철자법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글 맞춤법의 총칙 제1항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_표준어_(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_소리대로_ 적되, _어법에 맞도록_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밑줄 친 세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첫째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우리말이 지역에 따라 혹은 개인에 따라 비슷하기는 해도 그 모습이 똑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는 표준이 되는 말, 즉 표준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이상적이기도 하다. [구름], [달], [별], [해], [하늘]과 같은 여러 표준어 단어를 소리대로 '구름', '달', '별', '해', '하늘'로 적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표기법으로 가장 이상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 단어 중에는 놓이는 환경에 소리가 바뀌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어 '꽃'은 [꼬치, 꼳또, 꼰만]처럼 뒤에 어떤 조사가 놓이냐에 따라 소리가 [꽃, 꼳, 꼰]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대로 글자를 적게 되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가 [꼬치, 꼳또, 꼰만]처럼 바뀌어도 '_꽃_이, _꽃_도, _꽃_만'과 같이 형태를 고정하여 적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늘 동일하게 적으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와서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단어의 기본 형태를 고려하여 표기를 하나로 고정하여 적는 것, 이것이 곧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이다.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다지기

2.1. 한글 자모의 종류와 이름(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모두 24자이며,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위의 24자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참고]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2.2. 소리에 관한 맞춤법

2.2.1. 안쓰럽다/쑥스럽다(된소리의 표기: 제5항)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했다.

ㄱ. 모음/받침 'ㄴ', 'ㄹ', 'ㅁ', 'ㅇ' 뒤: 거꾸로, 선뜻, 살짝

반면에 '쑥스럽다'는 'ㄱ', 'ㅂ' 받침 뒤에 오는 자음은 음운 규칙에 따라 예외 없이 된소리로 소리가 나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이다.

ㄱ. 받침 'ㄱ' 뒤: 국수, 깍두기, 낙지, 떡갈나무, 싹둑
ㄴ. 받침 'ㅂ' 뒤: 갑자기, 넙죽, 몹시, 법석

2.2.2. 여성/남녀(두음 법칙: 제10항~제12항)

1) 두음 법칙의 뜻과 바른 표기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을 뜻한다. 한글 맞춤법 제10항~제12항에서는,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 소리를 꺼리는 두음 법칙에 따라 한자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자어 첫음: 녀, 뇨, 뉴, 니
바른 표기: 여, 요, 유, 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한자어 첫음: 랴, 려, 례, 료, 류, 리
바른 표기: 야, 여, 예, 요, 유, 이
어두/비어두: 양심/개량

한자어 첫음: 라, 래, 로, 뢰, 루, 르
바른 표기: 나, 내, 노, 뇌, 누, 느
어두/비어두: 낙원/극락
---

2) 의존 명사와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의존 명사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자어 '연도'는 일반적으로

두음 법칙에 따라 '연도'로 적지만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년도'로 적는다. 그리고 '신년도, 구년도'는 '신년-도, 구년-도'로 구조가 분석되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ㄱ. _연도_별 생산 실적
ㄴ. 2000 _년도_

의존 명사로 쓰이는 한자어로는 '냥, 년, 리' 등도 있다.

ㄱ. 말 한마디로 천 _냥_ 빚을 갚는다.
ㄴ. 몇 _년_ 몇 월 며칠이지?
ㄷ. 몇 _리_냐?

2.3. 형태에 관한 맞춤법

2.3.1. 아니오/아니요(어미의 표기: 제15항)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에서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에 종결형 어미 '-오'가 결합한 것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만 쓰일 수 있다.

반면에 '아니요'는 감탄사 '아니'에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붙은 꼴로, 예를 들어 "철수 있니?" "아니요, 없어요."와 같이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의 대답을 할 때 쓰는 말이다. 이때 '아니요'는 '아뇨'처럼 줄어든 형태로도 쓴다.

ㄱ. 이것은 책이 아니_오_. 이리로 오시_오_.(종결형)
ㄴ. '예/아니_요_'로 답하세요. 이게 좋아_요_.(존대)

또한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3]에서, 연결형에서는 '이요'를 쓰도록 정하고 있다.

ㄱ. 이것은 책_이요_ 저것은 연필이다.(연결형)
ㄴ. 이것은 내 책이_오_.(종결형)

2.3.2. 갈다/간(불규칙한 어간의 표기: 제18항)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1에서는,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는 'ㄹ'을 적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_간_ 쇠고기'처럼 어간 끝의 'ㄹ'을 적지 않아야 한다.

ㄱ. 물체가 _나_는 것을 보았다.
ㄴ. _거친_ 땅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었다.
ㄷ. _녹슨_ 철문을 교체했다.

2.3.3. 담그다/담가(불규칙한 어간의 표기: 제18항)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4에서는, 어간의 끝 'ㅜ'와 'ㅡ'가 줄어질 적에는 'ㅜ'와 'ㅡ'를 적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그다'에서 어간의 끝 'ㅡ'는 적지 않아야 하므로 '김치를 _담가_ 먹는다.'로 쓴다.

ㄱ. 흙을 _퍼_ 나르다.
ㄴ. 물을 _잠가라_.

2.3.4. 가깝다/가까워(불규칙한 어간의 표기: 제18항)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6에서는,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 적에는 'ㅂ' 대신에 'ㅜ'로 적도록 하였다. 그러면 '가깝다'에서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뀌므로 '직장이 _가까워_ 자주 마주친다.'로 쓴다.

ㄱ. 청춘은 _아름다워라_.

다만, '곱-', '돕-'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와'로 소리가 나면 예외로 '-와'로 적도록 하였다.

ㄱ. _고와도_ 내 님 미워도 내 님.

ㄴ.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2.3.5. 홀쭉하다/홀쭉이(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제23항)

한글 맞춤법 제23항에서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홀쭉하다'의 어근 '홀쭉'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홀쭉이'는 그 원형을 밝혀 '홀쭉이'로 쓴다.

반면 '개굴하다'나 '개굴거리다'와 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 '개구리'는 소리가 나는 대로 '개구리'로 적는다.

ㄱ. 꿀꿀이, 삐죽이, 오뚝이

ㄴ. 개구리, 귀뚜라미, 누더기, 딱따구리, 부스러기

2.3.6. 반듯하다/반듯이(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제25항)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에 접미사 '-이'가 붙은 부사 '반듯이'는 '그는 몸을 _반듯이_ 누이고'와 같이 원형을 밝혀서 쓴다. 반면에 '반듯하다'와는 관련 없이 '틀림없이 꼭'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 '반드시'는 '언행은 _반드시_ 일치해야 한다.'와 같이 소리가 나는 대로 쓴다.

ㄱ. 그는 나이가 _지긋이_ 들어 보인다.

ㄴ. 눈을 _지그시_ 감았다.

또한 부사 '더욱'에 접미사 '-이'가 붙은 부사 '더욱이'도 역시 '나이가 너무 어리고, _더욱이_ 몸도 약하다.'와 같이 원형을 밝혀서 쓴다.

ㄱ. 그의 콧날은 _오뚝이_ 도드라졌다.

ㄴ. 다음 날 새벽 _일찍이_ 출발했다.

2.3.7. 몇 월/며칠(합성어의 표기: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 [붙임 2]에서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몇 월 며칠이지?"라고 할 때 '며칠'은 어원을 분명히 밝히기 어려

운, 원형을 밝힐 수 없는 말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만일 '며칠'의 원형이 '몇+일'이라면 '몇 월'을 [며둴]로 발음하는 것처럼 '몇일'은 [며칠] 대신에 [며딜]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몇일'은 [며칠]로 발음되므로 어원을 분명히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며칠'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이렇게 어원을 분명히 밝히기 어려워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ㄱ. 골병, 골탕, 오라비, 부리나케

2.3.8. 전셋집/사글세 집/전세방(사이시옷의 표기: 제30항)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시옷(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도록 하였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ㄱ. 귓밥, 나룻배, 아랫집, 선짓국, 햇볕
ㄴ. 귓병, 아랫방, 전셋집, 탯줄, 핏기, 햇수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ㄱ. 아랫니, 잇몸, 냇물
ㄴ. 곗날, 제삿날, 수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ㄱ. 뒷일, 베갯잇, 나뭇잎
ㄴ. 가욋일, 예삿일, 훗일

그런데 이러한 소리 변화에 앞서 사이시옷을 적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 중 첫째는 두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두 명사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와 '집'이 결합된 '전셋집'은 합성어로 인정이 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전셋집'으로 적지만, '사글세'와 '집'이 연결된 '사글세 집'은 합성어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인 '사글세'와 '집'을 띄어서 '사글세 집'으로 적는 것이다.

또한 '전셋집'은 한자어 '전세'와 고유어 '집'이 결합되어 고유어를 포함하였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지만, '전세방'은 한자어 '전세'와 한자어 '방'처럼 두 한자어가 결합되어 고유어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한자어로만 구성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야 한다.

ㄱ. 초점, 대가, 체증, 전세방

그러나 다음의 두 음절로 된 6개의 한자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다.

ㄱ.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2.3.9. 가지다/갖다(준말의 표기: 제32항)

한글 맞춤법 제32항에서는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자음을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지다'는 모음 'ㅣ'가 줄어지면 남은 자음 'ㅈ'을 받침으로 적어서 '갖다'와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다.

그런데 '가지다'와 달리 그 준말인 '갖다'는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 제약이 있어서, '갖고, 갖지, 갖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있는 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되지 못한다. '디디다'와 그 준말인 '딛다'도 이와 같은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가지다(기본형)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ㄴ. 갖다(기본형) 갖고 갖지 갖니?
ㄷ. 디디다(기본형)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디뎌) 디디니 디디며 디딘
ㄹ. 딛다(기본형) 딛고 딛지 딛니?

2.3.10. 되어라/돼라(준말의 표기: 제35항)

한글 맞춤법 제35항의 [붙임 2]에서는, 'ㅚ' 뒤에 '-어'와 '-었'이 어울려 'ㅙ', 'ㅙ'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되다'의 어간 '되-'에 '-어라'가 연결된 '되어라'는 '돼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ㄱ. 시간이 {되어서/돼서} 모두 떠났다.
ㄴ. 이제 삼학년이 {되었다/됐다}.
ㄷ. 착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그러나 간접 인용문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는 '-(으)라고'이므로 '되다'의 어간 '되-'에 '-(으)라고'가 결합하면 '되라고'로 쓴다.

ㄱ.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_되라고_ 말씀하셨다.

2.3.11. 생각하건대/생각건대(준말의 표기: 제40항)

한글 맞춤법 제40항의 [붙임 2]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도록 하였다. 여기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드는 경우는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가 나는 때이다. 따라서 '생각하건대'를 줄여서 쓰면 '하'가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_생각건대_ 실수를 한 듯하다.'와 같이 쓴다.

ㄱ. 살림이 _넉넉지_ 않다.
ㄴ. 그곳은 _깨끗지_ 않다.
ㄷ. 귀한 손님이니 _섭섭지_ 않게 대접해라.

그 외의 경우에는 '하'에서 모음인 'ㅏ'만 줄고 자음인 'ㅎ'은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되도록 줄여서 쓴다.

ㄱ. 이번 달에 _제출토록_ 할 것.
ㄴ. 문제가 _간단치_ 않다.

2.4. 그 밖의 것

2.4.1. 곰곰이/꼼꼼히(제51항)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가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소리가 나는 것은 '-히'로 적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음이 [이]인지 [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혼동이 될 때는 사전을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 '-이' 로 적는 경우
① 'ㅅ' 받침 뒤: 깨끗이, 느긋이, 산뜻이
② 'ㅂ' 불규칙 형용사 뒤: 가까이, 날카로이
③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 뒤: 많이, 적이, 헛되이
④ 첩어 명사 뒤: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나. '-히' 로 적는 경우
① '히'로만 소리 나는 것: 급히, 딱히, 속히, 특히, 정확히
② '이, 히'로 소리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조용히, 간소히, 도저히

2.4.2. 갈게./갈까?(제53항)

한글 맞춤법 제53항에서는 어미를 예사소리로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에 어미 '-ㄹ게'가 결합한 경우에는 "내가 _갈게_."처럼 예사소리로 쓴다.
ㄱ. 그 일은 제가 _맡을게요_.
ㄴ. 그 사람은 벌써 _떠났을걸_.

반면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는 된소리로 적도록 하였으므로 "집에 _갈까_?"로 쓴다.
ㄱ.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향만 _같을쏘냐_?
ㄴ. 그것이 어디로 _갔을꼬_?

2.4.3. -던/-든지(제56항)

한글 맞춤법 제56항에서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미에 따라 둘을 잘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ㄱ. 달리_던_ 차들도 섰다.
그렇게 좋_던_가?
그 사람 말 잘하_던_데!
ㄴ. 배_든지_ 사과_든지_ 마음대로 먹어라.
무엇을 그리_든_ 잘만 그려라.

2.4.4. 기타 구별해야 할 말(제57항)

한글 맞춤법 제57항에서는 '가름', '갈음'과 같이 발음이 비슷하여 글로 쓸 때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ㄱ.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ㄴ.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ㄷ.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ㄹ. 아름: 세 아름이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앎이 힘이다.

ㅁ.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ㅂ.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3. 한글 맞춤법 정복하기

3.1. 소리에 관한 맞춤법 정복하기

3.1.1. 된소리 바로 적기

① 치닥거리 치다꺼리
② 어물적 어물쩍
③ 뚝배기 뚝빼기
④ 덥석 덥썩
* _한 단어 내_에서 된소리로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다만 'ㄱ'이나 'ㅂ' 받침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항상 된소리로 나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⑤ 꺾곶이 꺾꽂이
⑥ 곱배기 곱빼기
⑦ 눈살 눈쌀
⑧ 쌍커풀 쌍꺼풀
* 한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1.2. 두음 법칙을 따라 바로 적기

① 쌍용 쌍룡
② 광한누 광한루
③ 연이율 연리율
④ 고냉지 고랭지
*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첫머리뿐만 아니라 합성어나 고유 명사에도 두루 적용된다.

⑤ 출석율 출석률
⑥ 시청율 시청률
⑦ 할인율 할인률
⑧ 충열문 충렬문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과 '률'은 '열'과 '율'로 적는다.

⑨ 학습난 학습란
⑩ 토픽난 토픽란
⑪ 어머니난 어머니란
⑫ 수출양 수출량
⑬ 칼슘양 칼슘량
⑭ 소금양 소금량
* '난'과 '란', '량'과 '양'은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외래어인지로 구분하여 구별하여 적는다.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본음대로 '란', '량'으로 적지만, 앞말이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난', '양'으로 적는다.

3.2. 형태에 관한 맞춤법 정복하기

3.2.1. 어간과 어미 바로 적기

① 조용히 해 {주십시오/주십시요}.
② 겁에 질린 철수는 선생님께 "{아니오/아니요}."라고 대답했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는 '-오'로 적고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는 '요'로 적는다.

③ {낯선/낯설은} 사람이 아는 척을 한다.
④ 떠들지 {말아라/마라}.
(그동안 '말다'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ㄹ'을 탈락시켜 '(잊지) 마/마라'와 같이 써야 했으나, 2015년 12월 14일에 추가된 표준어에서는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잊지) 말아/말아라'와 같이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맞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⑤ 돌멩이가 정말 {조그맣네/조그마네}.
(그동안 '노랗다, 동그랗다, 조그맣다' 등과 같은 ㅎ불규칙용언이 종결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ㅎ'을 탈락시켜 '노라네/동그라네/조그마네'와 같이 써야 했으나, 2015년 12월 14일에 추가된 표준어에서는 불규칙 활용의 체계성과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노랗네/동그랗네/조그맣네'와 같이 'ㅎ'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맞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⑥ 큰일을 {치렀으니/치뤘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다.

⑦ 국수가 오래되어 {불면/불으면} 맛이 없다.
⑧ {싱그런/싱그러운} 젊음이 보기 좋다.
*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불규칙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히 바르게 표기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⑨ 엄마는 항상 {맞는/맞은} 말씀만 하신다.
⑩ 학생 신분에 {알맞는/알맞은} 옷차림.
⑪ 빈칸에 알맞지 {않는/않은} 말을 넣으세요.
⑫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걸맞은} 인재를 발굴한다.
* '맞다'는 동사이고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로 품사가 달라서 활용 방식도 다르다. 동사인 '맞다'는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가 결합하면 '맞는'처럼 어미 '-는'을 쓰지만, 형용사인 '알맞다, 걸맞다'는 '알맞은, 걸맞은'과 같이 어미 '-은'을 쓴다.

3.2.2. 접미사 바로 적기

① 그는 {노름/놀음}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②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놂/놀음}.
③ 이웃에게 온정을 {베풂/베품}.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반면에 어간의 뜻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④ 우리 집 강아지 중에 {얼룩이/얼루기}가 제일 영리하다.
⑤ {떠벌이/떠버리} 약장수.
*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

3.2.3. 사이시옷 바로 적기

① 종이조각 종잇조각
② 두부국 두붓국
③ 양치물 양칫물
④ 존대말 존댓말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

⑤ 머리글 머릿글
⑥ 농사일 농삿일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않거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⑦ 뒤쪽 뒷쪽
⑧ 나루터 나룻터
*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⑨ 소주잔 소줏잔
⑩ 화병 홧병
⑪ 회수 횟수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예외: 곳간, 찻간, 툇간, 셋방, 숫자, 횟수의 6개)도 있다.

⑫ 핑크빛 핑큿빛
⑬ 피자집 피잣집
*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⑭ 해님 햇님
⑮ 배호길 배홋길
* 사이시옷은 합성어인 경우에만 넣으므로 합성어가 아니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또, 길 이름은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3.2.4. 준말 바로 적기

① 관심을 {가지니/갖으니} 문제점을 알겠다.
② 첫발을 {디딘/딛은} 후에야 용기가 생겼다.
* '가지다'와 '디디다'의 준말 '갖다'와 '딛다'는 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③ 내일 다시 {찾아뵈도/찾아봬도} 되겠습니까?
④ 그 일이 {잘되서/잘돼서} 다행이다.
* 'ㅚ' 뒤에 '-어'와 '-었'이 어울려 'ㅙ', 'ㅙ'으로 되면 준 대로 적는다.

⑤ 친구에게 {적잖은/적쟎은} 신세를 졌다.
⑥ 생각보다 {만만찮은/만만챦은} 일이다.
*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되거나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으로 되면 준 대로 적는다.

⑦ 사용이 {간편게/간편케} 만들었다.
⑧ 그 지역 지리에 {익숙지/익숙치} 않다.
* '하다'가 결합하는 경우에 '하'에서 모음인 'ㅏ'만 줄고 자음인 'ㅎ'은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되도록 줄여서 쓰지만, '하다'의 앞에 오는 말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하'가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준 대로 적는다.

⑨ {아뭏든/아무튼} 요란한 포스터였다.
* '아무튼', '여하튼', '하여튼'은 소리대로 적는다. 반면에 '그렇든', '이렇든', '저렇든'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⑩ 약을 먹은 효과가 {금새/금세} 나타났다.

*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⑪ 그 이야기를 듣자 {왠지/웬지} 좋은 예감이 들었다.
⑫ {왠/웬} 낯선 사람이 오나 해서 나왔다.
* 왠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다. 그리고 '웬'은 '왜'와는 관련이 없는 말로 '어찌 된' 이나 '어떠한'의 뜻으로 쓰인다.

3.3. 그 밖의 맞춤법 정복하기

3.3.1. '-이'와 '-히' 구별하기

① 젊은 남녀들이 {간간이/간간히} 눈에 띄었다.
②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수북히} 쌓여 있다.
③ 구두 두 켤레가 {가지런이/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가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소리가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3.3.2. '박이'와 '-배기' 구별하기

① 할머니께서 담그신 {오이소박이/오이소배기}가 생각난다.
② {차돌박이/차돌배기}를 넣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③ 이제 겨우 {두 살박이/두 살배기} 아이가 방긋 웃는다.
④ {알박이/알배기} 굴비를 구워 냈다.
* '박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박이'를 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를 쓴다. 접미사 '-배기'는 '그 나이를 먹은 아이(세 살배기)',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나이배기)', '그런 물건(공짜배기)'을 뜻한다.

3.3.3. '-꾼', '-깔', '-꿈치', '-쩍다' 바로 적기

① {나뭇군/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책을 읽어 주었다.
② 옷감의 {땟갈/때깔}이 곱다.
③ 양말 {뒷굼치/뒤꿈치}를 꿰맸다.
④ 그는 실수가 {겸연적은지/겸연쩍은지} 씩 {멋적게/멋쩍게} 웃었다.
* '-꾼', '-깔', '-꿈치', '-쩍다'와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3.3.4. 기타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

① 대구를 {거쳐/걷혀} 부산으로 갔다.
② 안개가 {거치며/걷히며} 하늘이 더 밝아졌다.
* '거치다(영월을 거쳐 왔다.)'와 '걷히다(외상값이 잘 걷힌다.)'는 구별해서 쓴다.

③ 손으로 용수철을 죽 {늘였다/늘렸다}.
④ 주차장의 규모를 {늘였다/늘렸다}.
* '늘이다(고무줄을 늘인다.)'와 '늘리다(수출량을 더 늘린다.)'는 구별해서 쓴다.

⑤ 평생을 과학 연구에 몸을 {바쳤다/받쳤다}.
⑥ 쟁반에 커피를 {받치고/받히고} 조심조심 걸었다.
⑦ 달려오는 승용차에 {받쳐/받혀} 크게 다쳤다.
⑧ 씻어 놓은 상추를 채반에 {받쳤다/밭쳤다}.
* '바치다(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우산을 받치고 간다./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쇠뿔에 받혔다.)', '밭치다(술을 체에 밭친다.)'는 구별해서 쓴다.

⑨ 핵심 {부서로서/부서로써} 할 일이 많다.
⑩ {말로서/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와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는 구별해서 쓴다.

⑪ 그는 {부지런하므로/부지런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⑫ 이 정책을 {시행하므로/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 '-(으)므로(어미)'는 '-기 때문에'란 까닭의 의미를 나타내고, '(-ㅁ, -음)으로(써)(조사)'는 '-는 것으로(써)'란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 '-므로'는 '-므로써'가 되지 않지만 '-ㅁ으로'는 '우리 선조들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노동의 고단함을 이겨 나갔다.'와 같이 '-ㅁ으로써'가 가능하다.

⑬ 선거가 끝나면 벽보를 {떼기로/띄기로} 했다.
⑭ 미소를 {띤/띈} 얼굴
⑮ 멀리서도 눈에 {띤다/띈다}.
* '떼다(벽보를 떼다, 한글을 떼다, 입을 떼다)', '띠다(허리띠를 띠다, 임무를 띠다, 홍조를 띠다)', 띄다(눈에 띄다, 두 줄을 띄다)'는 구별해서 쓴다.

⑯ {그러고 나서/그리고 나서} 차를 마셨다.
⑰ 밥을 먹었다. {그러고는/그리고는} 차를 마셨다.
* '-고 나서'는 '가고 나서, 먹고 나서'처럼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 동사 '그러다'의 어간에 '-고 나서'가 붙은 말이므로 '그러고 나서'로 쓰는 것이 맞다. 또한 '-고는'도 '먹고는, 쉬고는, 말하고는'처럼 '-고' 앞에 동사의 어간이 온다. 그러므로 '그러고는'으로 쓴다.

<정답>

1. 소리에 관한 맞춤법 정복하기

1.1. 된소리 바로 적기

① 치다꺼리 ② 어물쩍 ③ 뚝배기 ④ 덥석 ⑤ 꺾꽂이 ⑥ 곱빼기 ⑦ 눈살 ⑧ 쌍꺼풀

1.2. 두음 법칙을 따라 바로 적기

① 쌍룡 ② 광한루 ③ 연이율 ④ 고랭지 ⑤ 출석률 ⑥ 시청률 ⑦ 할인율 ⑧ 충렬문 ⑨ 학습란 ⑩ 토픽난 ⑪ 어머니난 ⑫ 수출량 ⑬ 칼슘양 ⑭ 소금양

2. 형태에 관한 맞춤법 정복하기

2.1. 어간과 어미 바로 적기

① 주십시오 ② 아니요 ③ 낯선 ④ 말아라/마라 ⑤ 조그맣네/조그마네 ⑥ 치렀으니 ⑦ 불으면 ⑧ 싱그러운 ⑨ 맞는 ⑩ 알맞은 ⑪ 않은 ⑫ 걸맞은

2.2. 접미사 바로 적기

① 노름 ② 놂 ③ 베풂 ④ 얼루기 ⑤ 떠버리

2.3. 사이시옷 바로 적기

① 종잇조각 ② 두붓국 ③ 양칫물 ④ 존댓말 ⑤ 머리글 ⑥ 농사일 ⑦ 뒤쪽 ⑧ 나루터 ⑨ 소주잔 ⑩ 화병 ⑪ 횟수 ⑫ 핑크빛 ⑬ 피자집 ⑭ 해님 ⑮ 배호길

2.4. 준말 바로 적기

① 가지니 ② 디딘 ③ 찾아봬도 ④ 잘돼서 ⑤ 적잖은 ⑥ 만만찮은 ⑦ 간편케 ⑧ 익숙지 ⑨ 아무튼 ⑩ 금세 ⑪ 왠지 ⑫ 웬

3. 그 밖의 맞춤법 정복하기

3.1. '-이'와 '-히' 구별하기

① 간간이 ② 수북이 ③ 가지런히

3.2. '-박이'와 '-배기' 구별하기

① 오이소박이 ② 차돌박이 ③ 두 살배기 ④ 알배기

3.3. '-꾼', '-깔', '-꿈치', '-쩍다' 바로 적기

① 나무꾼 ② 때깔 ③ 뒤꿈치 ④ 겸연쩍은지, 멋쩍게

3.4. 기타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

① 거쳐 ② 걷히며 ③ 늘였다 ④ 늘렸다 ⑤ 바쳤다 ⑥ 받치고 ⑦ 받혀 ⑧ 밭쳤다 ⑨ 부서로서 ⑩ 말로써 ⑪ 부지런하므로 ⑫ 시행함으로(써) ⑬ 떼기로 ⑭ 띤 ⑮ 띈다 ⑯ 그러고 나서 ⑰ 그러고는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필요성

(1) ㄱ. 철수가방에들어간다.
ㄴ. 어디서든막걸리면좋지.
ㄷ. 헌법은국가의법의체계적기초로서국가의조직구성및작용에관한근본법이며다른법률이나명령으로써변경할수없는한국가의최고법규이다.

(2) ㄱ. 철수가 방에 들어간다./철수 가방에 들어간다.
ㄴ. (전화기가) 어디서든 막 걸리면 좋지./어디서든 (술 종류가) 막걸리면 좋지.
ㄷ. 헌법은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1)과 (2) 예문을 비교해 보면 띄어쓰기를 한 (2)의 문장이 (1)의 문장보다 의미 파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1)의 ㄱ과 ㄴ은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 규정을 둔 것이다.

2. 띄어쓰기의 원리

<한글 맞춤법>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2.1. 단어

위의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규정한 대로 우리는 글을 쓸 때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국어에서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가리킨다. 여기서 '자립적으로 쓰인다.'는 말은 문장에서 해당 단어의 앞과 뒤에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의 9가지 품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예문) 숲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있었습니다.
- 자립적으로 쓰이는 말: 숲, 두, 갈래, 길
- 자립 형식에 준하는 말: 갈라지-, 있-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ㄴ, 었, 습니다...)를 동사나 형용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므로 '갈라진', '있었습니다'를 하나의 단어로 본다.
- 조사: 에, 는, 로, 이

2.2. 품사

단어를 그 문법적 특징에 따라 몇 갈래로 분류한 범주를 품사라고 한다. 품사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로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어의 경우 형태적 기준은 '격 조사나 어미가 결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능적 기준은 '문장에서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지, 혹은 어떤 성분의 수식을 받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또한 의미적 기준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2.2.1.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뒤에 격 조사가 결합될 수 있고, 관형사 또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한편, 명사처럼 뒤에 격 조사가 결합될 수 있으면서 관형사 또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단어들로, '대명사'와 '수사'가 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나, 너, 우리, 그, 그녀, 그것, 이것, 저것...)이고, 수사는 '수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하나, 둘, 셋, 열, 스물, 서른, 일흔, 여든, 아흔, 한둘, 두셋, 서넛, 너덧, 대여섯, 열두셋, 열서넛, 두서넛, 서너덧...)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체언이라 부른다.

ㄱ. 명사: 이 _학생_이 네 _오빠_니?
ㄴ. 대명사: 활달한 _그_가 먼저 말을 걸었다.
ㄷ. 수사: _둘_에 _셋_을 더하면 _다섯_이 된다.

2.2.2. 동사, 형용사

동사는 뒤에 어미가 결합될 수 있고 부사 및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형용사도 동사처럼 뒤에 어미가 결합될 수 있고 부사 및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사와 구분된다.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 부른다.

ㄱ. 동사: 빨리 _뛴다_.
ㄴ. 형용사: 매우 _빠르다_.

<참고>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

① 현재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동사 어간 뒤에는 '-는다/-ㄴ다'가 결합되고, 형용사 어간 뒤에는 '-다'가 결합된다.
가. 영희는 빵을 먹_는다_.
나. 누나는 예쁘_다_.

② 동사 어간 뒤에는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어라'나 청유형 종결어미 '-자'가 결합될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 뒤에는 결합될 수 없다.

가. 정민아, 빵 먹_어라_./정민아, 빵 먹_자_.

나. 정민아, 예_뻐라_.(X)

③ 동사 어간 뒤에는 '-고 있다', '-아/어 있다', '~ 중이다' 등과 같은 표현이 올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 뒤에는 올 수 없다.

가. 정민이는 빵을 먹_고 있다_./정민이는 빵을 먹고 있는 _중이다_.

나. 정민이는 예쁘_고 있다_.(X)/정민이는 예쁜 _중이다_.(X)

<참고> 어미

동사·형용사 어간 및 서술격 조사 '이-' 뒤에 결합되는 형태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 잡-(동사 어간) + -고/-아/-으니/-으면/-아라...
* 작-(형용사 어간) + -고/-아/-아서/-으니/-으면...
* 이-(서술격 조사) + -고/-니/-면/-ㄴ데...

이러한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어절의 끝에 위치하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 위치하는 어미이다. 예를 들어 '입었다'의 경우 '입-'은 동사의 어간이고 '-었-'은 선어말 어미이며, '-다'는 어말 어미이다.

동사나 형용사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형에서 어간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사전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을 먼저 확인한 다음, 기본형에서 어미 '다'를 빼고 남는 부분이 바로 어간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에서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식이 어미이다.

2.2.3.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와 부사는 뒷말을 수식하는 단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다만 관형사는 명사·대명사·수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형용사 및 부사를 수식한다는 점이 다르다. 비록 뒤에 오는 단어를 한정하고 수식하는 기능을 보이더라도 격 조사나 어미가 결합될 수 있다면 관형사나 부사가 될 수 없다.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 수식언이라고 부른다.

ㄱ. 관형사: _새_ 책

ㄴ. 부사: _아주_ 많다

관형사의 종류: 관형사는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성상 관형사: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관형사

예) 갖은(양념), 딴(일), 새(책상), 옛(추억) 등

②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형사

예) 이, 저, 이런, 무슨, 어느 등

③ 수 관형사: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예) 한, 두, 한두, 서너, 대여섯, 모든, 몇, 여러 등

부사의 종류: 부사는 수식 위치나 수식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성분 부사: 문장 안의 어떤 성분을 꾸미는 부사
가. 성상 부사: 상황의 정도나 상태, 모습 등을 나타냄.
예) 가장, 너무, 매우 등
나. 지시 부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나 시간을 나타냄.
예) 그리, 이리, 저리, 막, 방금, 언제 등
다. 부정 부사: 수식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냄.
예) 안, 못
② 문장 부사: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예)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또는, 설마, 하여튼 등

2.2.4. 감탄사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라고 한다. 감탄사는 품사 분류 기준 가운데 의미적 기준만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문장에서 독립어로 쓰인다.

감탄사의 종류
① 기쁨: 하하, 호호 등
② 놀라움: 아, 아뿔싸, 애고 등
③ 성냄: 에, 엣, 에끼 등
④ 슬픔: 아이고, 어이 등
⑤ 한숨: 허, 허허, 후, 후유 등
⑥ 기타: 아서라, 얘, 엉, 여보세요 등

2.2.5. 조사

조사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뒤에 결합되어, 앞말의 문법적 역할을 표시하거나 앞말에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이다. 이러한 조사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 그리고 보조사로 나뉜다.

조사의 종류
① 격 조사: 앞말이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사이다. 앞말이 주어가 되도록 하는 주격 조사(이/가, 에서, 께서), 목적어가 되도록 하는 목적격 조사(ㄹ/을/를), 보어가 되도록 하는 보격 조사(이/가), 관형어가 되도록 하는 관형격 조사(의),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부사격 조사(에, 에서, 에게, 로/으로, 처럼, 만큼, 보다, 와/과, 하고), 독립어가 되도록 하는 호격 조사(아/야, 이여), 서술어가 되도록 하는 서술격 조사(이다)가 있다.
② 접속 조사: 문장에서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에(다), (이)며, (이)랑' 등이 있다.
③ 보조사: 문장에서 앞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대표적인 예로 '은/는, 만, 부터, (이)나, (이)나마, 도, 까지' 등이 있다.

띄어쓰기에 초점을 두고 다시 정리하면, 국어의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앞과 뒤를 띄어 쓸 수 있는 자립 형식이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는 그 자체로는 의존 형식이지만,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뒤에 결합되는 어미와 함께 묶어 자립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간주한다. 의존 형식인 조사도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로 보고 있는데, 다른 단어들과 달리 앞말에 반드시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글 맞춤법 제41항 참조)

한편 단어보다 작은 언어 단위들도 있는데, '덧-(덧버선)'처럼 다른 성분 앞에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두사와 '-쟁이(멋쟁이)'처럼 다른 성분 뒤에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미사가 그것이다.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결합되는 '어미'와 더불어 이들 접두사와 접미사도 단어보다 작은 의존적인 성분들이므로 앞이나 뒤에 오는 말에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품사별 띄어쓰기
① 명사: _학교_ 간다.
_학교_에 간다.
② 대명사: _그녀_ 온다.
_그녀_가 온다.
③ 수사: _하나_, _둘_
_하나_에 _둘_을 더하면 _셋_이다.
④ 동사: _잡은_ 물고기
물고기를 _잡았다_.
⑤ 형용사: _예쁜_ 꽃
꽃이 _아름답다_.
⑥ 관형사: _새_ 책상
⑦ 부사: _멀리_ 본다.
⑧ 감탄사: _어이쿠_! 넘어졌네.
⑨ 조사: 철수_가_ 학교_에_ 간다.

2.3. 합성어와 구의 판별 기준

새로 태어나는 단어(신어)는 대부분 그 언어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복합어이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의 단어를 차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첫사랑'은 '첫'과 '사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이며, '신세계'는 '신-+세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여기서 '첫', '사랑', '신-', '세계'는 모두 국어의 언어 단위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다. 이에 비해 다른 언어의 단어를 차용한 예로는 '테니스', '골프', '주스' 등이 있다.

기존의 언어 단위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복합어는 '구'와 자주 혼동되기도 한다. 특히 글을 쓰다 보면 '합성어'인지 '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합성어라면 그 구성 성분들을 모두 붙여서 써야 하지만, 구라면 그 구성 성분들을 띄어 써야 한다. 합성어와 구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미의 변화: 둘 이상의 단위가 연속된 구성이 합성어가 되었을 경우, 기존의 그 구성 성분들이 지니던 의미 외의 다른 의미가 더 생기거나, 아니면 그 구성 성분들의 의미 총합

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다른 의미로 바뀐다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돌옷'이 구라면 '돌'과 '옷'의 의미이어야 하는데, 실제 의미는 '이끼'이므로 이는 구성 성분의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보아 합성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비분리성: 둘 이상의 단위가 연속된 구성이 합성어가 되었을 경우, 그 구성 성분들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감나무를 심었다."라는 문장에서 '감나무'는 '감+나무'로 구성된 형식인데, 여기서 '감나무'가 합성어인지 구인지는 이들 사이에 다른 요소를 개입시켜 보면 알 수 있다. 즉 "* 감과 나무를 심었다."처럼 '감'과 '나무' 사이에 조사 '과'나 '의' 등 다른 성분을 개입시킬 수 없으면, 이때의 '감나무'는 합성어로 보는 것이다.

3. 띄어쓰기의 실제

3.1.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ㄱ.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이다, 꽃처럼
ㄴ. 어디까지, 거기도, 웃고만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학교+에서+라도', '이곳+에서+부터+는'의 경우처럼 조사 뒤에 다시 조사가 연속적으로 붙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ㄱ. 철수_같이_, 칭찬_은커녕_, 좋습니다_그려_.
ㄴ. 여기_서부터가_

3.2.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ㄱ. 아는 _것_이 힘이다.
ㄴ. 나도 할 _수_ 있다.
ㄷ. 먹을 _만큼_ 먹어라.
ㄹ. 아는 _이_를 만났다.

의존 명사: 관형사나 관형어의 꾸밈이 없이 단독으로 문장의 맨 앞에 놓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명사들처럼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도 못하는 명사이다. 그러나 일반 명사와 마찬가지로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며, 또한 격 조사를 취한다는 특성 때문에 명사로 취급되고 있다.

의존 명사 목록: 개, 것, 겸, 경, 그루, 김, 나름, 나머지, 나위, 녘, 노릇, 대, 대로, 데, 되, 둥, 듯, 등, 따름, 따위, 때문, 리, 마련, 마리, 만큼, 망정, 모양, 무렵, 바, 바람, 병, 분, 뻔, 뿐, 사람, 사발, 섬, 셈, 수, 양, 장, 족족, 줄(가능), 중, 즈음, 지(시간), 지경, 쪽, 쯤, 차, 참, 채, 척, 체, 켤레, 터, 턱, 통, 판, 한

한편,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대로', '만큼', '뿐' 등의 단어에 대해 의존 명사와 조사의 두 품사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존 명사라면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라면 앞말과 붙여 써야 하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의존 명사와 조사는 분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의존 명사는 관형사나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분포할 수 있지만, 조사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분포할 수 없다는 분포적 기준으로 이 두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가 아닌 말(동사나 형용사 어간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에서 관형사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어미를 말한다.
'-ㄴ/-은/-는', '-ㄹ/-을/-를', '던'이 있다.

ㄱ. '관형어/관형사형 어미(-ㄴ/-은/-는, -ㄹ/-을/-를, 던)' + '의존명사(대로/만큼/뿐)' (앞말과 띄어 씀)
㉠ 이번 사건은 법에 있는 _대로_ 처리되어야 한다.
㉡ 명주는 무명이 질긴 _만큼_ 질기지 않다.
㉢ 철수는 축구를 잘 할 _뿐만_ 아니라 농구도 잘 한다.

ㄴ. '명사/대명사/수사' + '조사(대로/만큼/뿐)' (앞말에 붙여 씀)
㉠ 이번 사건은 법_대로_ 처리되어야 한다.
㉡ 명주는 무명_만큼_ 질기지 않다.
㉢ 철수는 축구_뿐만_ 아니라 농구도 잘한다.

따라서 '대로', '만큼', '뿐' 앞에 관형사형 어미나 관형어가 위치하고 있으면 이때의 '대로', '만큼', '뿐'은 의존 명사이고, '대로', '만큼', '뿐'의 바로 앞에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이 위치하고 있으면 이때의 '대로', '만큼', '뿐'은 조사가 된다. 조사일 경우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고,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_개_, 차 한 _대_, 금 서 _돈_, 소 한 _마리_, 옷 한 _벌_, 열 _살_, 연필 한 _자루_, 집 한 _채_, 신 두 _켤레_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ㄱ. 두_시_ 삼십_분_ 오_초_, 제일_과_, 삼_학년_

ㄴ. 1446_년_ 10_월_ 9_일_, 2_대대_, 80_원_, 10_개_

다른 언어에 비해 국어에는 수효나 분량 따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은 편이다. 위의 <제43항>에 제시된 의존 명사의 예가 그러한 것들인데, 이들은 모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ㄱ.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ㄴ. 12억 3456만 7898

따라서 '구천구백구십구', '육백육', '삼백일' 등의 수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적는다.
참고로 '십_여_만 명', '십 년_여_ 기간', '삼백삼십_여_ 명' 등에서처럼 수를 나타내는 구성에 자주 쓰이는 '여(남을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적어야 한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ㄱ. 국장 _겸_ 과장, 열 _내지_ 스물, 청군 _대_ 백군
ㄴ. 책상, 걸상 _등_이 있다.
ㄷ. 이사장 _및_ 이사들

'겸'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아울러 함'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대'는 앞뒤에 오는 명사가 '서로 상대하는', '짝이 되는', '비교되는'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며, '등', '등등', '등속', '등지'는 '그 밖의 것(종류/곳)'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 '내지'는 '혹은', '또는'의 뜻을, '및'은 '또', '그 밖에도'의 뜻을 지니며 앞뒤의 말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 부사이므로 이 역시 앞말과 뒷말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한잎 두잎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의 원칙에 따르면 문장에서의 각 단어는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하는데, '그 때 그 곳'처럼 1음절 단어가 연속된 구성은 독서의 능률을 고려하여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것들끼리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ㄱ. 그 때 그 곳, 그때 그곳
ㄴ. 그 때그 곳(X)

그렇지만 부사와 관형사, 또는 관형사와 관형사가 이어진 구성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띄어 써야 한다.

ㄱ. 부사 + 관형사: 더 큰 집
ㄴ. 관형사 + 관형사: 저 새 책

그리고 비록 한 음절로 된 부사와 부사가 이어진 구성이더라도 그 부사들의 문법적인 성질이 아주 다를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

ㄱ. 더 못 먹는다.
ㄴ. 꽤 안 온다.

'더'와 '꽤'는 정도 부사이고, '못'과 '안'은 부정 부사이어서 그 문법적 성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붙여 쓰지 않는다.

3.3. 제3절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보조 용언으로 사용될 경우 본용언의 의미에서 멀어진, 추상적이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즉 '가다'의 경우 본용언일 때의 의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이지만, 보조 용언일 때에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과 같은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보조 용언 용례
가다: (진행) 철수는 그 책을 다 읽어 _간다_.
내다: (완료) 슬픔을 이겨 _내다_.
놓다: 시험에 낙방을 해 _놓고_ 무슨 할 말이 있냐?
두다: 있을 때 열심히 먹어 _두어라_.
드리다: 할머니께 책을 읽어 _드렸다_.
버리다: 철수는 친구가 오기 전에 가 _버렸다_.
보다: 강둑이 터질까 _봐_ 마을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함).

㉠ 불이 _꺼져 간다_.
㉡ 불이 _꺼져간다_.

㉠ 내 힘으로 _막아 낸다_.
㉡ 내 힘으로 _막아낸다_.

㉠ 어머니를 _도와 드린다_.
㉡ 어머니를 _도와드린다_.

㉠ 그릇을 _깨뜨려 버렸다_.
㉡ 그릇을 _깨뜨려버렸다_.

㉠ 비가 _올 듯하다_.
㉡ 비가 _올듯하다_.

㉠ 그 일은 _할 만하다_.
㉡ 그 일은 _할만하다_.

㉠ 일이 _될 법하다_.
㉡ 일이 _될법하다_.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ㄱ.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ㄴ. 책을 읽어도 보고....
ㄷ.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ㄹ.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ㅁ. 그가 올 듯도 하다.
ㅂ. 잘난 체를 한다.

보조 용언도 독립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위치할 경우 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 용언은 본용언일 때의 의미를 상실하고 추상적인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점과 앞에 있는 본용언과 더불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모든 보조 용언 구성을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붙여 쓸 수 있는 보조 용언 구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아/어' + 보조 용언 구성: 먹어 보다/먹어보다, 잡아 주다/잡아주다, 닮아 가다/닮아가다
ㄴ. '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듯하다, 듯싶다, 만하다, 법하다, 척하다...)의 보조 용언: 올 듯하다/올듯하다, 먹을 만하다/먹을만하다, 모르는 척하고/모르는척하고

한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존 명사와 '-하다', '-싶다' 사이에 조사가 결합된 경우도 붙여 쓰지 않는다.

ㄱ. 먹어_도_ 보고
ㄴ. _잡아먹어_ 버렸다.
ㄷ. 모르는 척_도_ 하고

참고로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성격을 바꾼다{형용사(예쁘다) → 동사(예뻐하다), 타동사(믿다) → 자동사(믿어지다) 등}는 점에서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ㄱ. 친구들 앞에만 서면 나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ㄴ. 어머니는 동생만 예뻐한다.

3.4.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쓴다. 그런데 성이 2음절일 경우,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 쓸 수도 있도록 허용'하였다. 왜냐하면 성이 '남궁'인 경우, '남궁억'처럼 붙여서 표기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궁억'인지 '억'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성이 2음절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함).

㉠ 대한 중학교
㉡ 대한중학교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을 원칙으로 하고, ㉡을 허용함).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만성골수성백혈병

㉠ 중거리 탄도 유도탄

㉡ 중거리탄도유도탄

제49항의 고유 명사와 제50항의 전문 용어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과 이들 단어들을 띄어 쓰면 독서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표준어 규정

1. 표준어의 필요성

우리는 일상에서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만나 생활하게 되었고, 사투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었다. 즉,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상 공통된 언어, 기준이 되는 언어인 표준어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사회 방언도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된다. 직업에 따라,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른 데다가 최근에는 통신언어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쓰던 어휘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게 되면서 표준어의 필요성도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2. 표준어 규정의 개정

1989년 3월에 표준어 규정을 시행 공표하기 전까지 우리말 사용의 척도는 1936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공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었다. 그러나 8·15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고, 그만큼 국어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표준어 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러 번의 개정 작업을 걸쳐 문교부는 1988년 개정안인 '표준어 규정'을 발표하였고 1989년 3월 시행을 공표하였다. 현재 표준어는 이러한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있다.

3. 표준어의 개념

표준어 사정 원칙의 제1장 총칙은 표준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시대적으로는 '현대'의 말을, 지역적으로는 편의상 수도의 말인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여기에 계층적 조건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을 표준어로 정한다.

4. 표준어의 실제

<문제 1> 글쓰기에서 단락을 시작할 때에는 첫 (① 칸 ② 간)을 띄어야 한다.

한 단어의 일부 자음이 예사소리 또는 된소리에서 거센소리로 바뀌어 굳어진 경우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3항). '일정한 규격으로 둘러막아 생긴 공간'을 뜻하는 '칸'은 '간(사이 간)'에서 온 말이지만 발음이 '칸'으로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칸'이 표준어가 되었다. 이와 같은 예로는 '나팔꽃(* 나발꽃)', '살쾡이(* 삵괭이)', '털어먹다(* 떨어먹다)' 등이 있다. (* 표시가 된 낱말은 비표준어)

<문제 2> (① 강낭콩 ② 강남콩)의 덩굴이 처마까지 뻗어 올라갔다.
<문제 3> 우리는 결혼 생활을 (① 사글세 ② 삭월세)로 시작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5항). 현재 언중이 사용하는 어휘의 형태가 어원과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국어사적으로 어원이 명확히 밝혀졌더라도 어원 의식이 사라진 어휘는 어원과 다른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강낭콩(* 강남콩)', '사글세(* 삭월세)' 등이 있다.

<문제 4> 어머니는 맏이보다는 (① 둘째 ② 두째) 아이를 더 걱정하신다.
<문제 5> 이 자리를 (① 빌려 ② 빌어)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유사한 형태의 어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때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제6항). '돌'과 '* 돐', '둘째'와 '* 두째', '셋째'와 '* 세째', '넷째'와 '* 네째', '빌리다'와 '* 빌다' 등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언중은 이들 어휘 쌍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인 '돌', '둘째', '셋째', '넷째', '빌리다'만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다만, 둘째의 경우 십 단위 이상에서는 서수사와 기수사를 구분한다. 즉, '열두째, 스물두째, …' 등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를 의미하고, '열둘째, 스물둘째, …' 등은 수량을 나타내는 기수사를 뜻한다.

<문제 6> 병아리 감별사는 병아리의 암놈과 (① 수놈 ② 숫놈)을 식별하는 사람이다.
<문제 7> 황소는 누런 소가 아니라 (① 수소 ② 숫소)를 뜻한다.
<문제 8> 꿀벌 세계에서 (① 수벌 ② 수펄 ③ 숫벌)은 불쌍한 존재이다.

수컷을 뜻하는 접두사 '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ㅎ'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표준어는 현대 국어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제7항).

<문제 9> 짝짓기 경쟁에서 밀린 (① 수퇘지 ② 수돼지 ③ 숫돼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ㅎ' 소리가 결합한 형태가 완전히 굳어져서 현재까지 널리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어휘는 예외적으로 접두사 '수-' 다음에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이러한 예로는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등 9개의 어휘가 있다. 접두사 '암-'이 결합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문제 10> 상자에 암쥐를 넣자 (① 숫쥐 ② 수쥐)의 도파민 수치가 90퍼센트 가량 올라

갔다.

'수-+양', '수-+염소', '수-+쥐' 등은 [순냥], [순념소], [숟쮜] 등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이들 3개의 어휘는 사잇소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 '숫양', '숫염소', '숫쥐' 등으로 적는다.

<문제 11> 지혜와 정애는 꼭 (① 쌍둥이 ② 쌍동이) 같다.
<문제 12> 눈이 내리자 아이들은 좋아서 (① 깡충깡충 ② 깡총깡총) 뛰었다.
<문제 13>그의 콧날은 (① 오뚝이 ② 오똑이) 도드라졌다.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8항). 어원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를 뜻하던 '-동이'는 현재에 이르러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원 의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지배적인 형태인 '-둥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쌍둥이'를 비롯하여 사람을 뜻하는 모든 어휘는 '* -동이'가 아닌 '-둥이'를 취한다. 이러한 예로는 '막둥이', '외둥이', '칠삭둥이' 등이 있다.
양성모음('ㅏ, ㅗ' 계열)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ㅓ, ㅜ' 계열) 어울리는 모음 조화는 우리말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음 조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깨진 경우에는 이를 표준어로 정한다. '깡충깡충', '오뚝/오뚝이/오뚝하다'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는 양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문제 14> 봄이 되니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① 부좃돈 ② 부줏돈)도 많이 든다.

'부조(도울 부, 도울 조)'는 '부주'라고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원 의식이 강력히 살아 있는 어휘이므로 어원의 형태인 '부조'가 표준어이다. '사돈', '삼촌' 등도 이와 같은 예이다.

<문제 15> 긴 겨울이 지나고 (① 아지랑이 ② 아지랭이) 가물거리는 봄이 찾아왔다.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제9항)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ㅣ' 역행 동화란 모음 'ㅏ, ㅓ, ㅗ, ㅜ'가 후행하는 모음 'ㅣ'에 동화되어, 'ㅐ, ㅔ, ㅚ, ㅟ'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호랑이'를 [호랭이]로,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다.

<문제 16> 그는 여전히 (① 풋내기 ② 풋나기)처럼 보인다.
<문제 17> 빨간 (① 자선냄비 ② 자선남비)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접미사 '-내기', 명사 '냄비', 동사 '(내)동댕이치다' 등은 완전히 굳어진 형태로 보아 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접미사 '-장이'와 '-쟁이'는 두 형태 모두 표준어인데 의미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문제 18> 그는 아버지를 따라 (① 염장이 ② 염쟁이)가 되었다.

<문제 19>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그는 (① 멋쟁이 ② 멋장이)로 소문나 있다.

접미사 '-장이'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한다. 반면에 '-쟁이'는 결합한 명사와 관련된 특성,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한편, '-쟁이'가 특정 직업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쓰이던 때가 있어 이를 사전이 인정하고 있다. '글쟁이[작가]', '환쟁이[화가]' 등이 그 예이다.

<문제 20> 그는 성격이 (① 괴팍해서 ② 괴퍅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문제 21> 그는 선비는 (① 으레 ② 으례 ③ 의례) 가난하려니 하고 살아왔다.

역사적으로 이중 모음으로 소리 나던 단어가 현대에 이르러 단모음으로 굳어진 경우 이들 어휘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10항). '괴팍하다', '으레' 등은 '괴퍅(어그러지다 괴, 너그럽지 못하다 퍅)', '의례(의지하다 의, 법식 례)'에서 온 말이므로, 어원을 고려하면 '괴퍅하다', '의례' 혹은 '으례'를 표준어로 삼아야 하지만, 현실 발음이 '괴팍하다', '으레'로 굳어졌으므로 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문제 22> 그는 젊은이의 행동을 점잖게 (① 나무랐다 ② 나무랬다).
<문제 23> 주식 투자에서 요행을 (① 바라서는 ② 바래서는) 안 된다.
<문제 24> 어머니는 텃밭에 (① 상추 ② 상치)와 고추를 심으셨다.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11항).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나무라다(* 나무래다)', '미숫가루(* 미싯가루)', '바라다(* 바래다)', '상추(* 상치)', '주책(* 주착)', '지루하다(* 지리하다)' 등이 있다.

<문제 25> (① 웃어른 ② 윗어른) 앞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문제 26> 사회생활을 하면서 (① 윗사람 ② 웃사람) 눈치 보는 법만 늘었다.

'웃-'과 '윗-'은 쓰임이 다르므로 의미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의 형태를,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는 '윗-'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12항). 그러므로 '웃돈', '웃돌다', '웃통' 등은 '웃-'으로,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머리', '윗목' 등은 '윗-'으로 표준어를 정한다.

<문제 27> 개울 (① 위쪽 ② 윗쪽)은 붉은 흙과 돌 더미가 드러난 척박한 곳이었다.
<문제 28> 개미는 (① 위턱 ② 윗턱)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

'아래, 위' 대립이 있는 단어 가운데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에는 '윗-'이 아닌 '위-'를 표준어로 삼는다.

<문제 29>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① 구절 ② 귀절)을 들려줄게.

한자 '구(글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제13항). 한때, 한자 '구(글 구)'는 '구'와 '귀' 두 가지로 발음하여 언중이 발음을 혼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 제13항에서 속음인 '귀'를 버리고 본음인 '구'를 취하여 통일하였다. '구절', '결구', '시구' 등이 그 예이다. 다만, '구'가 고유어 '글'과 결합한 어휘는 '구'를 '귀'로 읽어 '글귀', '귀글'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문제 30> 배가 고픈 나머지 우리는 밭에 있는 (① 무 ② 무우)를 뽑아 먹었다.
<문제 31> (① 생쥐 ② 새앙쥐) 한 마리가 우리 집 부엌을 드나든다.
<문제 32> 워낙 (① 경황없이 ② 경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문제 33>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 (① 수두룩하다 ② 수득하다).
<문제 34> 공식만 많이 (① 외운다고 ② 왼다고)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5>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① 머무르면서 ② 머물면서) 쉴 생각이다.

본말과 준말,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쓰이는 경우에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고(제14항),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제15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제16항). 이에 따라 준말인 '무, 생쥐'가 표준어이며, 본말인 '경황없다, 수두룩하다'가 표준어이다. 또한, '외우다'와 '외다', '머무르다'와 '머물다'는 본말과 준말이 모두 인정된다.

<문제 36> 나도 (① 그러려고 ②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니야.
<문제 37> 그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멍하니 (① 천장 ②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제17항). '의도'의 뜻을 지니는 어미 '-려고'와 '* -ㄹ려고', '반자의 겉면'을 뜻하는 '천장'과 '천정'은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는 '-려고'와 '천장'을 각각 표준어로 정하였다.

<문제 38> 다음 물음에 (① 네 ② 예), 아니요로 답하시오.
<문제 39> 어머니는 도시락 반찬으로 (① 쇠고기 ② 소고기) 장조림을 싸 주셨다.
<문제 40> 바지가 너무 (① 조여서 ② 죄어서) 불편하다.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발음이 유사한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그 두 어형이 모두 널리 쓰이는 경우에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제18항). 이러한 예로는 '네-예', '쇠--소-', '괴다-고이다', '꾀다-꼬이다', '쐬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쬐다-쪼이다' 등이 있다.

<문제 41> 그 청년은 (① 거슴츠레한 ② 게슴츠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

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제19항). 이러한 예로는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꺼림하다-께름하다' 등이 있다.

<문제 42> 늙은이는 구슬프고 (① 애달픈 ② 애닯은) 가락으로 뱃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0항). '* 애닯다'는 사어이므로 '애달프다'만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문제 43> 그는 거짓말이 들통 날까 봐 (① 안절부절못했다 ② 안절부절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제25항). '* 목맺히다'는 비표준어이고 '목메다'는 표준어이며, '* 새벽별'은 비표준어이고 '샛별'은 표준어이다. '* 안절부절하다'는 비표준이고 '안절부절못하다'는 표준어이며, '* 주책이다'는 비표준어이고 '주책없다'는 표준어이다.

<문제 44>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참 (① 가여운 ② 가엾은) 아이구나.
<문제 45> 나는 어머니가 아끼시는 거울을 실수로 (① 깨뜨렸다 ② 깨트렸다).
<문제 46> 어서 (① 오셔요 ② 오세요).
<문제 47> 그날 이후 그는 길에서 나와 마주쳐도 (① 알은척하지 ② 알은체하지) 않았다.
<문제 48> 그 문제는 부모님께 (① 여쭈어 ② 여쭈워) 보고 결정할게요.
<문제 49> 그 아이는 우리 학교 (① 학생이에요 ② 학생이어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6항). 이러한 예로는 '가뭄-가물', '가엾다-가엽다', '넝쿨-덩굴', '-뜨리다--트리다', '-(으)셔요--(으)세요',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알은척-알은체', '여쭈다-여쭙다', '우레-천둥', '이에요-이어요' 등이 있다.

<부록>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1)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인정한 것(20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묫자리	묏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스레기
흙담 토담
구안와사 구안괘사
굽신 굽실
눈두덩이 눈두덩
삐지다 삐치다
초장초 작장초
마실 마을
이쁘다 예쁘다
찰지다 차지다
-고프다 -고 싶다

2)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2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걸판지다: ① 매우 푸지다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거방지다: ① 몸집이 크다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③ =걸판지다

겉울음: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②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건울음: =강울음, 눈물 없이 우는 울음,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

-길래: '-기에'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기에: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까탈스럽다: ① 조건, 규정 등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② 성미나 취향 등이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까다롭다: ① 조건 등이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② 성미나 취향 등이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개발새발(개의 발과 새의 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괴발개발(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개발새발'과 같은 의미

꼬리연: 긴 꼬리를 단 연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나래: 흔히 문학 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
날개: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내음: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이며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눈초리: ①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② =눈꼬리

떨구다: ①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
② 고개를 아래로 숙이다
떨어뜨리다: ①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②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빠뜨려 흘리다
③ 뒤에 처지게 하거나 남게 하다

뜨락: ① =뜰
②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먹을거리: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

메꾸다: ①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다.
②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우다.
메우다: '메다'의 사동사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실뭉치: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
실몽당이: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

어리숙하다: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어수룩하다: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함

연신: 잇따라 자꾸(반복성)
연방: 연속해서 자꾸(연속성)

의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의논: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

이크: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키'보다 큰 느낌을 준다.
이키: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끼'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잎새: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잎사귀: 낱낱의 잎. 주로 넓적한 잎을 이른다.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할 때 이르는 말.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휭하니: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힁허케: '휭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꼬시다: '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꾀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등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딴지: 일이 순순히 진행 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딴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찟: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선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앓이: ① 속이 아픈 병
②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속병: ①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3)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가 존재하는 추가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두리뭉실하다 두루뭉술하다
맨숭맨숭/맹숭맹숭 맨송맨송
바둥바둥 바동바동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아웅다웅 아옹다옹
야멸차다 야멸치다
오손도손 오순도순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4)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껸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5) 현재 표준적인 활용형과 용법이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것(4개)

추가된 표준형 현재 표준형

말아, 말아라, 말아요 마, 마라, 마요

노랗네, 동그랗네, 조그맣네, …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

엘랑 에는

주책이다 주책없다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어떻게 적을지를 정한 규칙이다. 우리말을 적을 때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한국인이 외래어 발음을 익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적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경위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에 대한 표기 방법을 처음으로 규정지은 것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한 조항에서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이 된 것은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다. 그리고 이를 수차례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을 충실하게 적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 자모 외의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2항은 외래어의 음운과 국어의 자모를 일대일 대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이다. 왜냐하면 외래어의 1 음운은 한글의 한 자모로 적을 수 있을 때 기억하고 표기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의 'p'가 '펜(pen), 스프링(spring), 갭(gap)'에서처럼 한글로는 'ㅍ, 프, ㅂ'으로 다양하게 적히는 경우에는 일 대 삼, 이 대 일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3항은 외래어라고 할지라도 국어의 말음 규칙을 적용하여 외래어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된소리인 'ㅃ, ㄸ, ㄲ'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

어의 파열음은 유·무성의 대립이 없으므로 유·무성 대립이 있는 외국어의 파열음과는 달라 표기할 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유·무성 대립이 있는 파열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 'ㅂ, ㄷ, ㄱ'으로,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 'ㅍ, ㅌ, ㅋ'으로 적기로 하였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외래어는 특정한 원칙만으로는 표기를 일관되게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5항에서 이미 언중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굳어진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아도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즉, 'camera, radio, system' 등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캐머러, 레이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카메라, 라디오, 시스템'으로 적는다는 것이다.

4. 외래어 표기의 실제

4.1. 자음

(1) 사과 잼 : 사과 쨈(jam)
ㄱ. 가스, 카페, 파리, 버스
ㄴ. 셀프 서비스, 재즈, 모차르트
ㄷ. 빵, 껌, 마오쩌둥, 쓰나미
ㄹ. 빠따니(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ㅉ'을, 일본어 표기에는 'ㅆ'을 사용한다. 또 '빵, 껌, 히로뽕, 삐라' 같이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ㄷ). 그리고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별도의 표기 규정이 없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들 중 현지 발음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표기에 해당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 어, 타이 어, 베트남 어 등 동남아시아 3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은 (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답: 사과 잼)

(2) 워크숍 : 워크숖
커피숍, 디스켓, 슈퍼마켓, 코너킥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자음만 받침 글자로 쓰므로 '워크숍'이 맞는 표기가 된다. (답: 워크숍)

(3) 팀웍 : 팀워크
ㄱ. 로봇, 카펫, 인터넷
ㄴ. 테이프, 플루트, 케이크

ㄷ.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ㄹ. 네트, 세트, 매트
ㅁ.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 어말의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는다(ㄱ).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ㄴ). 또 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더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ㄷ). 예외적으로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더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ㄹ).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ㅁ). (답: 팀워크)

(4) 애드립 : 애드리브(ad lib)
ㄱ. 베드, 허브, 지그재그, 개그맨, 샐러드
ㄴ. 핸드백, 웹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항상 'ㅡ'를 붙여서 적는 것이 원칙이다(ㄱ). 그러나 '핸드백(handbag), 웹(web)'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ㄴ). (답: 애드리브)

(5) 휘트니스 센터 : 피트니스 센터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팬

[f] 소리는 항상 'ㅍ'으로 적는다. (답: 피트니스 센터)

(6) 잉글리시 : 잉글리쉬
ㄱ. 슈미트
ㄴ. 대시, 플래시(flash), 리더십
ㄷ.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
ㄹ. 아인슈타인, 타슈켄트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ㄱ, ㄴ).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ㄷ).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ㄹ). (답: 잉글리시)

(7) 마사지 : 맛사지
스케치북, 케첩, 브리지, 스위치

[ʤ, ʧ]는 모음 앞에서는 'ㅈ, ㅊ'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답: 마사지)

(8) 드라이클리닝 : 드라이크리닝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

소리 [r]과 [l]은 구분하지 않고 모두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답: 드라이클리닝)

4.2. 모음

외래어 표기에서, 모음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철자에 이끌려 표기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단어를 구성하는 철자가 지닌 소리에 따라 적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 포탈 : 포털
센터, 디지털, 터미널

[ə]는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답: 포털)

(2) 콤플렉스 : 컴플렉스
ㄱ.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
ㄴ.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
ㄷ. 톱클래스, 보디 샴푸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ㄱ). (ㄴ)에 있는 예들은 발음이 [kən]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로 적어야 한다. 흔히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을 것 같지만, 발음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ㄷ)은 [ɔ]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므로 '아'로 적어서는 안 되며 '톱클래스, 보디 샴푸'로 적어야 한다. (답: 콤플렉스)

(3) 컬러 : 칼라(color)
커버, 허니, 넘버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지닌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답: 컬러)

(4) 보너스 : 보우너스
ㄱ. 윈도, 코트, 옐로, 보트
ㄴ. 샤워, 파워, 아이젠하워

음가가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ㄱ). 다만 [ou]는 '오'로, [auə]

는 '아워'로 적는다(ㄴ). (답: 보너스)

(5) 비커 : 비이커
ㄱ. 오사카, 뉴욕
ㄴ. 알코올, 아밀라아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ㄱ). 다만 (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답: 비커)

(6) 쥬스 : 주스
주니어, 레저, 찬스, 크리스천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쟈, 져, 죠, 쥬, 챠, 쳐, 쵸, 츄'처럼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답: 주스)

4.3. 그 밖의 표기

(1) 메이크업 : 메이컵
아웃렛, 로그인, 헤드라이트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답: 메이크업)

(2) ㄱ. Michael: 마이클(영)/미하엘(독, 러)/미카엘(덴)
ㄴ. Charles: 찰스(영), 샤를(불)
ㄷ.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어 철자가 같더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캐머러 : 카메라
ㄱ. 라디오, 시보레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ㄷ. 레이다/레이더, 로브스터/랍스터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ㄱ). (ㄴ) 단어의 원어 철자는 'cut'와 'type'로 같다. 그렇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하여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커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깎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또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그 밖에도 (ㄷ)의 단어들은 두 표기를 다 인정하는 예들이다. (답: 카메라)

(4) 그 외 외국인의 인명과 지명

동양인의 인명과 지명 가운데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지명과 인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지금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가고시마'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이등박문'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장안/* 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대만'과 '타이완'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연습 문제>

1. complex ① 콤플렉스 ② 컴플렉스
2. control ① 컨트롤 ② 콘트롤
3. cake ① 케잌 ② 케익 ③ 케이크
4. robot ① 로봇 ② 로보트
5. diskette ① 디스켓 ② 디스켙
6. Marx(사람 이름) ① 맑스 ② 막스 ③ 마르크스
7. workshop ① 워크샾 ② 워크숍
8. Super Junior ① 수퍼 쥬니어 ② 슈퍼 주니어 ③ 수퍼 주니어
9. leisure sports ① 레저 스포츠 ② 레져 스포츠
10. color television ① 칼라 텔레비전 ② 컬러 텔레비젼 ③ 컬러 텔레비전
11. family ① 훼미리 ② 패밀리
12. front ① 후론트 ② 프론트 ③ 프런트
13. barbecue ① 바베큐 ② 바비큐
14. biscuit ① 비스켓 ② 비스킷
15. buffet ① 뷔페 ② 부페
16. caramel ① 캬라멜 ② 캐러멜
17. carol ① 캐롤 ② 캐럴
18. corsage ① 코르사주 ② 코사지
19. claim ① 클레임 ② 크레임
20. blouse ① 브라우스 ② 블라우스
21. margarine ① 마아가린 ② 마가린

22. slow food ① 슬로푸드 ② 슬로우푸드
23. eye shadow ① 아이샤도 ② 아이샤도우
24. towel ① 타올 ② 타월
25. atelier ① 아뜰리에 ② 아틀리에
26. leadership ① 리더십 ② 리더쉽
27. cash ① 캐시 ② 캐쉬
28. cut(이발) ① 컷 ② 커트 ③ 컷트
29. cut(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삽화) ① 컷 ② 커트 ③ 컷트
30. type(어떤 유형이나 형태) ① 타입 ② 타이프
31. type(타자기) ① 타입 ② 타이프

<정답>

1. complex ① 콤플렉스
2. control ① 컨트롤
3. cake ③ 케이크
4. robot ① 로봇
5. diskette ① 디스켓
6. Marx(사람 이름) ③ 마르크스
7. workshop ② 워크숍
8. Super Junior ② 슈퍼 주니어
9. leisure sports ① 레저 스포츠
10. color television ③ 컬러 텔레비전
11. family ② 패밀리
12. front ③ 프런트
13. barbecue ② 바비큐
14. biscuit ② 비스킷
15. buffet ① 뷔페
16. caramel ② 캐러멜
17. carol ② 캐럴
18. corsage ① 코르사주
19. claim ① 클레임
20. blouse ② 블라우스
21. margarine ② 마가린
22. slow food ① 슬로푸드
23. eye shadow ① 아이샤도
24. towel ② 타월
25. atelier ② 아틀리에
26. leadership ① 리더십
27. cash ① 캐시
28. cut(이발) ② 커트

29. cut(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삽화) ① 컷
30. type(어떤 유형이나 형태) ① 타입
31. type(타자기) ② 타이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을 말한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의 로마자 표기가 다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외국인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거나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국어를 적는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 경위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져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으나 반달표와 어깨점과 같이 특수 부호를 사용했다는 점과 자음의 유·무성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다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3.1. 기본 원칙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2. 기본 원칙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위의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이름의 표기,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표기 일람: 모음과 자음의 표기

4.1. 모음

국어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단모음

ㅏ: a　ㅓ: eo

ㅗ: o　ㅜ: u

ㅡ: eu　ㅣ: i

ㅐ: ae　ㅔ: e

ㅚ: oe　ㅟ: wi

이중모음

ㅑ: ya　ㅕ: yeo

ㅛ: yo　ㅠ:yu

ㅒ: yae　ㅖ: ye

ㅘ: wa　ㅙ: wae

ㅝ: wo　ㅞ: we

ㅢ: ui

4.2. 자음

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파열음

ㄱ: g, k　ㄲ: kk　ㅋ: k

ㄷ: d, t　ㄸ: tt　ㅌ: t

ㅂ: b, p　ㅃ: pp　ㅍ: p

파찰음

ㅈ: j　ㅉ: jj　ㅊ: ch

마찰음

ㅅ: s　ㅆ: ss　ㅎ: h

비음

ㄴ: n　ㅁ: m　ㅇ: ng

유음

ㄹ: r, l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모음 앞'과 '자음 앞이나 어말'에 관한 규정이 'ㄱ, ㄷ, ㅂ'에만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일곱 가지,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며, 이외의 다른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위의 7자음 가운데 하나인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ㄱ. 보복 bobok, 동녘 dongnyeok
ㄴ. 밥 bap, 법 beop
ㄷ. 낟 nat, 걷기 geotgi
ㄹ. 낫 nat, 못 mot
ㅁ. 낮 nat, 벚꽃 beotkkot
ㅂ. 낯 nat, 좇다 jotda
ㅅ. 났 nat, 있다 itda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이 겹쳐서 소리 나는 경우, 즉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두 'ㄹ'이면 'l'로 적는다.

나라 nara, 달나라 dallara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

5.1. 음운 변화

5.1.1. 자음 동화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이 또는 두 음운 모두가 바뀌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바뀐다.
국민[궁민] gungmin
닫는다[단는다] danneunda

② 'ㄹ'은 'ㅁ,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종로[종노] Jongno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ㅁ'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속리산[송니산] Songnisan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고,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신라[실라] Silla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별내[별래] Byeollae

5.1.2. 음의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소리는 위의 자음 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ㄱ. 색연필[생년필] saengnyeonpil
ㄴ. 알약[알략] alayak

5.1.3. 구개음화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뀐다. 이를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같이[가치] gachi 해돋이[해도지] haedoji

5.1.4. 거센소리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데, 이 역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표기에 반영한다. 다만 명사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좋다 jota 집현전 Jiphyeonjeon

5.1.5. 된소리화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애국가'는 [애국까]로 소리 나는데, '가'가 [까]로 소리 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불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ㄱ. 울산 Ulsan ㄴ. 압구정 Apgujeong

5.2. 붙임표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슨'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운 Seun/Se-un
중앙 Jungang/Jung-ang

5.3. 소문자와 대문자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적는다.

부산 Busan

5.4. 인명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며,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홍길동 Hong Gildong(Hong Gil-dong)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Han Boknam'으로 적는다. 이름은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의 소리대로 적는다.

5.5. 행정 구역명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단위(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와 '가'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ㄱ.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ㄴ. 의정부시 Uijeongbu-si

ㄷ. 도봉구 Dobong-gu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왕리'는 [인왕니]로 발음되지만 'Inwangni' 혹은 'Inwang-ni'라고 적지 않고 'Inwang-ri'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는 'Cheongju-si'로 표기하지만 'Cheongju'라고 써도 된다. '함평군'은 'Hampyeong'으로, 순창읍 'Sunchang'으로 쓸 수 있다.

5.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자연 지물명인 '남산', '금강' 등을 'Mt. Nam', 'Geum River'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Namsan', 'Geumgang'이라고 쓰면 '산'과 '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Mt.'와 'River' 등을 통해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산'은 '남'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남산' 전체가 고유 명사이고, '금강'은 '금'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금강' 전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남산'과 '금강'은 각각 'Namsan', 'Geumgang' 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재인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 Namsan 경복궁 Gyeongbokgung

5.7. 인명, 회사명, 단체명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사명과 단체명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를 수정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회사명을 각각 'Samsung, Hyundai'로 표기한다. 하지만 새로운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표준 발음법

1.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준어를 써야 하며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까닭은 표준어를 동일하게 발음함으로써 통일된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은정, '표준어 해설', 1988: 239, 대제각)

2. 표준 발음법의 제정 과정

표준 발음법은 한글 맞춤법이 공포된(1933년) 뒤 55년이 지나서야 고시되었다. 그동안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소리 표준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1988년 1월 19일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은 표준 발음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4. 표준 발음 익히기

4.1. 자음과 모음

4.1.1.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ㄱ. 가져[가저], 쪄[쩌], 다쳐[다처]
ㄴ. 계집[계:집/게:집], 시계[시계/시게]
ㄷ. 무늬[무니], 희망[히망]
ㄹ.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ㄱ). 그리고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하며(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ㄷ).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ㄹ).

4.2. 소리의 장단

4.2.1. 긴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ㄱ.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ㄴ. 첫눈[첫눈], 참말[참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ㄴ).

4.2.2. 긴소리를 가진 음절을 짧게 발음하는 경우

ㄱ.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ㄴ. 끌다[끌:다]-끌어[끄:러]
ㄷ. 감기다[감기다], 꼬이다[꼬이다]
ㄹ.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ㄱ),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ㄷ) 등은 짧게 발음한다. 그렇지만, 단음절인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해도 짧게 발음하지 않거나(ㄴ),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어도 짧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ㄹ) 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3. 받침의 발음

4.3.1.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의 발음

닦다[닥따], 옷[옫], 앞[압]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된다.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4.3.2. 받침 'ㄳ', 'ㄵ', 'ㅀ, ㄽ, ㄾ', 'ㅄ'의 발음

ㄱ. 넋[넉], 넋과[넉꽈]
ㄴ. 앉다[안따]
ㄷ. 여덟[여덜], 외곬[외골]
ㄹ. 값[갑], 없다[업:따]
ㅁ. 밟다[밥:따], 밟게[밥:께]
ㅂ. 넓죽하다[넙쭈카다]

국어에는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ㅀ, ㅄ 등과 같이 11개의 겹받침이 있다. 이와 같은 겹받침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한다.

4.3.3. 받침 'ㄺ, ㄻ, ㅀ'의 발음

ㄱ. 닭[닥], 맑다[막따]
ㄴ. 삶[삼:], 젊다[점:따]
ㄷ. 읊고[읍꼬], 읊다[읍따]
ㄹ. 맑게[말께], 묽고[물꼬]

겹받침 'ㄺ, ㄻ, ㅀ'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ㄱ~ㄷ). 그렇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ㄹ).

4.3.4. 받침 'ㅎ(ㄾ, ㄶ)'의 발음

ㄱ. 놓고[노코], 좋던[조:턴]
ㄴ.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ㄷ. 옷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ㄹ. 닿소[다쏘], 많소[만:쏘]
ㅁ. 놓는[논는], 쌓네[싼네]
ㅂ. 않네[안네], 않는[안는]
ㅅ. 놓아[노아], 많아[마:나]

'ㅎ(ㄾ, ㄶ)'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ㄱ).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ㄴ). 그리고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ㅎ(ㄾ, ㄶ)'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하고(ㄹ), 'ㅎ(ㄾ, ㄶ)'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ㅁ). 그렇지만, 'ㅎ(ㄾ, ㄶ)'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ㅂ). 'ㅎ(ㄾ, ㄶ)'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ㅅ).

4.3.5. 받침 뒤에 'ㅏ, ㅓ, ㅗ, ㅜ, ㅟ'의 실질 형태소가 올 때의 발음

ㄱ.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밥], 맛없다[마덥따], 꽃 위[꼬뒤]
ㄴ. 맛있다[마싣따]/[마딛따], 멋있다[머싣따]/[머딛따]
ㄷ. 넋 없다[너겁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의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ㄱ).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딛따], [머딛따]를 표

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따], [머싣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ㄷ).

4.4. 소리의 동화

4.4.1.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ㅣ'와 결합될 때의 발음

ㄱ. 굳이[구지], 밭이[바치]
ㄴ.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ㄱ). 'ㄷ' 뒤에 접미사 'ㅎ'이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ㄴ).

4.4.2. 'ㄴ, ㅁ' 앞의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ㅙ, ㅞ, ㅄ)'의 발음

ㄱ.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ㄴ. 꽃망울[꼰망울], 있는[인는]
ㄷ. 국물[궁물], 흙만[흥만]

장애음 'ㅂ, ㄷ, ㄱ'은 비음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뀐다. 따라서 받침 'ㄱ(ㄲ,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ㅙ, ㅞ,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ㄱ~ㄷ).

4.4.3.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의 발음

ㄱ. 침략[침냑], 강릉[강능]
ㄴ. 막론[망논], 백리[뱅니]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ㄱ). 그리고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ㄴ).

4.4.4. 'ㄹ'의 앞이나 뒤에 있는 'ㄴ'의 발음

ㄱ. 난로[날:로], 신라[실라]
ㄴ.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ㄷ. 닮는[달른], 뚫는[뚤른]

국어에서 'ㄴ'과 'ㄹ'은 발음이 연이어 나올 수 없어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ㄱ~ㄴ). 이는 비음 'ㄴ'이 유음 'ㄹ'에 동화되어 소리가 [ㄹ]로 바뀌기 때문이다. 첫소리 'ㄴ'이 'ㅀ, ㄾ'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4.5. 된소리되기

4.5.1. 받침 'ㄱ(ㄲ,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ㅙ, ㅞ,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ㄱ. 국밥[국빱], 깎다[깍따]
ㄴ. 있던[읻떤], 꽂고[꼳꼬]
ㄷ. 덮개[덥깨], 넓죽하다[넙쭈카다]

받침 'ㄱ(ㄲ,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ㅙ, ㅞ,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ㄷ).

4.5.2. 어간 받침 'ㄴ(ㄵ), ㅁ(ㄻ), ㅙ, ㅞ'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의 발음

ㄱ. 신고[신:꼬], 껴안다[껴안따]
ㄴ.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ㄷ. 넓게[널께], 핥다[할따]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ㄴ). 그리고 어간 받침 'ㅙ, ㅞ'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한다(ㄷ).

4.5.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의 발음

ㄱ. 갈등[갈뜽], 발등[발뜽]
ㄴ. 허허실실[허허실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ㄴ).

4.5.4.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ㄱ. 할 것을[할꺼슬], 할 바를[할빠를]
ㄴ. 할걸[할껄], 할수록[할수록]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4.5.5.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서,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산새[산쌔], 손재주[손째주]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4.6. 소리의 첨가

4.6.1. 'ㄴ'소리 첨가

ㄱ. 솜이불[솜:니불], 담요[담:뇨]
ㄴ.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금융[금늉/그뮹]
ㄷ. 한 일[한닐], 서른여섯[서른녀섣]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ㄱ). 다만, '이죽이죽, 야금야금, 검열, 금융'과 같은 말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4.6.2. 'ㄹ' 소리 첨가

ㄱ.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서울역[서울력]
ㄴ.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섣]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ㄱ).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4.6.3. 사이시옷의 발음

ㄱ. 냇가[내:까/낻:까], 샛길[새:낄/샏:낄]
ㄴ. 콧날[콘날], 아랫니[아랜니],
ㄷ. 나뭇잎[나문닙], 베갯잇[베갠닏]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ㄱ). 그리고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 에는 [ㄴ]으로 발음한다(ㄴ).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ㄴㄴ]으로 발음한다(ㄷ).